

**담당 : 홍보팀 강명윤 대리ㅣ Office : 02)560-4442 ㅣ Mobile : 010-2996-7842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5월 02일(금) 18:0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5월 02일(금) 18:00**

**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**

**2라운드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4일(일) |
| 3 | 장 소 |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[산길(OUT) / 숲길(IN)]  |
| 4 | 주 최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, 크리스에프앤씨 |
| 5 | 주 관 | KLPGA |
| 6 | 총 상 금 | 13억 원 (우승상금 2억 3천 4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05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김민선7, 방신실, 김민주, 이예원, 박보겸, 고지우, 유현조, 박현경, 박지영, 마다솜, 배소현, 정지효, 송은아, 전예성, 이다연, 장하나, 장수연, 정희원, 최혜정 등 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SBS(지상파)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08시 ~ 18시[2라운드] 08시 ~ 18시 (SBS지상파 16:00 ~ 17:00)[3라운드] 09시 ~ 16시[최종라운드] 09시 ~ 16시 |

**◈ 박현경 2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(68-69) 137타 \*18시 기준 공동 1위**

**-박현경 상세 프로필**

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0**

**-박현경 KLPGA 챔피언십 3승 도전**

\* KLPGA 챔피언십 다승 기록



**-박현경 코멘트**

**Q. 의미 있는 대회에서 2라운드까지 선두권으로 마치셨다. 소감?**

오늘 정말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플레이를 계속 했다. 찬스가 왔을 때 3~4M 버디 퍼트는 다 놓치면서 10M 가까운 롱 퍼트는 들어갔다. 그래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.

**Q. 이 대회에서 우승할 때는 모두 역전 우승이었다. 이번에는 선두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?**

우승했었던 거의 모든 대회에서 선두로 출발한 것보다 추격했던 기억이 많다. 선두를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.

**Q. 우승 경쟁에 경계되는 선수가 있는지?**

한 번도 누구를 경계하거나 의식하면서 플레이해본 적이 없다.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지만 생각한다.

**Q. 1라운드와 다른 점?**

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다. 어제도 버디 4개에 오늘도 버디 4개다. 어제오늘 기록한 버디가 모두 정말 가까이 붙이거나 거의 8M 이상의 롱퍼트였다.

**Q. 3라운드, 최종라운드 어떤 부분을 준비할건지?**

경기 중반부터 3~4M 퍼트를 연습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리고 아이언 샷도 아직 기복이 있다고 느껴져서 아이언 샷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.

**◈ 홍정민 2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(69-68) 137타 \*18시 기준 공동 1위**

**-홍정민 상세 프로필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-홍정민 코멘트**

**Q. 2라운드 소감?**

어제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피로가 안 풀렸었는데, 오늘 초반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애썼다. 덕분에 경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2타를 줄이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.

**Q. KLPGA 챔피언십에서 성적이 좋진 않았었는데?**

이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, 이번에 이렇게 역사가 가장 깊은 대회에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다. 오늘 역대 우승자 분들을 만나고 플레이를 시작했는데, 좋은 기운을 받아서 플레이가 잘 된 것 같다.

**Q. 남은 라운드 각오?**

그린이 말라 있는데, 핀위치에 따라 난도가 크게 갈릴 것 같다. 핀위치에 따른 코스 공략에 집중하려고 한다.

**Q. 2022시즌 첫 우승 이후 오랫동안 우승이 없는데?**

우승한 지 오래 돼서 약간 우승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.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. 언제나 목표는 우승이다.